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1) 南 燕*

■ 목 차 ■

1. 머리말 한국어학과 교육 목표에 대한 재고
2. 인성 교육(함양),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문학 교육의 관계
3.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성 및 특징
4.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의 실제
5. 맺음말

1. : 한국어학과 교육 목표에 대한 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한국어 교육¹⁾이나 한국학 전문 인재의 양성을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²⁾, 이 두 가지 교육 틀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첫째 언어자료로서의 문학에 대한 교육, 둘째 문화자료로서의 문학에 대한 교육, 셋째 문학 자체로서의 문학에 대한

* 북경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1) 한국의 대학 소재 언어(한국어)교육원과 중국의 일부 전문대(관광 가이드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 등)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 2) 중국 4년제 대학교 한국어학과가 대체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이 그것이다.³⁾

그러나 여기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어 교육, 특히 중국 4년제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나 한국학 전문 인재의 양성에만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육의 본질(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과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 나아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성 교육(인성 함양)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목표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가정, 학교에서 사회까지, 교육의 모든 장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의 교육은 출세지향주의, 경쟁원리에 의한 지식 주입 교육, 과학 기술 전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인성 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그래도 다소 반가운 일은 최근 들어 과학 기술을 익힘과 동시에 인문 교육까지 강화하여 인문정신을 갖춘 인간(건전한 인성을 갖추는 인간)을 양성하자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⁴⁾이 보인다는 것이다.⁵⁾ 이

3)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윤여탁, 「문학 교육과 한국어 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제19차)학술대회 논문집, 2003, 1~29면.

남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목표 및 내용의 선정과 체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43~62면.

4) 중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대학생 문화적 소양 교육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이란 문서를 반포함으로써 인문교육 강화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는 사상도덕 소양, 문화적 소양, 전공지식 소양, 신체 심리적 소양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문화적 소양은 가장 기초적인 소양으로 간주된다. 인문학적 소양 교육(인문 교육)에 중점을 둔 문화적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주로 대학생들에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자연과학 분야의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체 대학생들의 문화적 품위, 심미적 취향, 인문적 소양 및 과학적 소양

는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의 무한한 팽창으로 인해 인문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서, 교육의 본질로 회귀하지는 주장과 그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 다양성과 복잡성에 뿌리를 둔 지식 정보화 사회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창의적 사고력)과 지혜를 갖춘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⁶⁾

이상의 논의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건전한 인성과 창의력(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과의 교육 목표 규정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는 외교, 국제무역, 국제문화교류, 외국기업관리, 언론, 출판, 외국어교육 및 외국 문제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덕과 재능을 겸비한 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한국)어문학 기초 지식을 가지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번역하기 기능을 신장한다.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외교, 정치, 경제 현황 등에 관한 비교적 폭넓은 이해를 가지며, 중국과 세계 문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안다. 국가 4급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하고, 비교적 좋은 중국어 수준과 표현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독립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다.”

- 5) 중국에서는 인성 교육보다는 인문 교육, 인성 함양보다는 문화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어휘의 느낌상 인문교육이나 인문학적 소양문화적 소양은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사람과 문화)를 지니고 있고 일반적 인문 지식 습득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성 교육이나 인성 함양은 상대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일반적 인문 지식 습득보다는 감성적인 정신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서양의 ‘인문 교육’의 어원과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인문 교육의 본질은 바로 인성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陳雲愷, 「人性教育：人文教育的“課程方法”」, 『高等教育研究』 23-4, 2002, 1~5면).
- 6) 중국의 경우, 『21세기를 향한 교육 진흥 계획(面向21世紀的教育振興行動計劃)』(1999)과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2001)에서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적인 학습 능력과 초보적 연구 능력 및 각종 사회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⁷⁾

위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 기존의 한국어과는 훌륭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한국학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는 한국학 전문 인재, 바꾸어 말하면 한국학 분야의 기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강조한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관한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다.⁸⁾ 물론 한국어학과는 한국어학과인 만큼 훌륭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한국학 관련 전문 지식(한국 문화 능력)을 갖추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다만 일차적인 목표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차적인 목표에만 얽매일 경우 말만 잘하고 한국 문화 지식만을 잘 아는 기능적인 인간이 육성될 우려가 있다.⁹⁾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창의력 신장에 치중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한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그 하위 영역의 한국 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도 차별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¹⁰⁾ 본 연구는 바로 이와 같

7) 여기에서는 북경대학교 한국어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이는 1999년도에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한 2009년도 판본이다.

8) 인성 교육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덕과 재능을 겸비한[德才兼備]’, ‘중국과 세계 문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안다[對中國和世界文化有比較廣博的知識]’는 글귀이다. 그러나 인성 교육은 ‘덕과 재능’, ‘중국과 세계에 관한 지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9) 현실에서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어는 잘하지만 생각이 별로 없는 학생, 한국 문화 지식은 줄줄 외우고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된 학생,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잘 이해하는데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학생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0)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인성 교육은 대학교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중국(동양, 세계)문학, 중국(세계)철학, 중국(세계)역사, 사상교육과 도덕 수양 등의 과목을 통해 이룰 수 있으니 굳이 한국어 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

이 차별화된 한국어과 교육 목표에 따른 한국 문학 교육의 새로운 면모를 그려보고자 한다.

2. 교육(함양),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문학 교육의 관계

앞서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학 관련 전문 지식의 습득이란 일차적인 목표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면 인성 교육(인성 함양)이란 무엇이고, 창의적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개념과 문학(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문학(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2.1. 교육(인성 함양)과 문학 교육

에 따르면 한국어과 교육 목표가 전환되더라도 문학 교육의 구도가 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인성 교육은 어느 한 과목을 통해 완벽하게 함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와 같은 견해는 다소 편파적임을 알 수 있다.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 교육과 전공 수업을 통한 인성 교육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지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어학과는 인문계열의 학과인 만큼 인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 인문정신을 내포하는 한국어 자료(특히 문학 자료)를 배움으로써 한국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연 중에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중국 교육부에서 반포한 <대학생 문화적 소양 교육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라는 문서에서도 전공 교육에서 인문학적 교육(인성 교육)을 시종일관 관찰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전공 수업에서 인성 교육을 함께 실시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2)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성취하기 위해 문학 교육이 한국어학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전공 수업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문학 교육을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인성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성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인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김기석¹¹⁾은 서양이론의 연장선에서 인성을 ‘개인의 본질’이라 명명하고 인성의 통합적, 체계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한편 황응연¹²⁾은 최근에 논의된 인성에 대한 개념으로 인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비교 검토한 후 인성을 성격, 기질, 개성의 상위 개념으로 전제하고,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생리적 체제로서 개인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역동적 구조라고 파악하였다. 이 두 정의에 따르면 인성이란 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 각 분야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인간의 활동이나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적응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

또는 교육에 대한 정의도 한 마디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 활동으로서 인간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는 계획적 시도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인성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의 만남, 즉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문화를 전승, 재구성, 창조하는 가치 지향적 활동’이라 규정할 수 있다.¹⁴⁾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완결된 인격체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문화를 계승하고 가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¹⁵⁾

11) 김기석, 『성격과 지도』, 현대교육출판사, 1968, 240~241면 참조.

12) 황응연,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1995, 28면 참조.

13)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21면 참조.

14) 이러한 인성 교육에 대한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세 가지 전제로 1) 교육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의 만남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점, 2)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 3)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격 형성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문화 발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상효 외, 『교육학개론』, 형성출판사, 1994, 25면 참조.

15) 편폭 관계로 인성 및 인성 교육의 정의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다. 이에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현수, 「고전소설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1~18면.

이와 같은 인성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짓는 분야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자,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인성 교육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과 인성 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학이 가치 있는 체험의 세계라는 질은, 더불어 사는 삶의 인간다움을 문학에서 터득하게 해 준다. 문학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남의 독자성을 용납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독립성과 책임을 지님과 동시에 남에게 그런 가치를 고무하게 되고, 자유를 추구하고, 편견과 간섭 그리고 강요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연구 보고된 바 있다.¹⁶⁾

이처럼 인간다움을 내포하는 문학의 본질은 바로 인성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문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성 교육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내용 자료라 하겠다.

한편 인성 교육을 위해 문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즉 문학(에 대한) 교육이 인간화 교육(인성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문학을 그저 하나의 읽기(이해와 감상) 대상, 수용하기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문학을 읽고 창작하며, 문학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활동 중심 문학 교육), 문학을 자기실천과 관련지어야만이 비로소 인간화의 덕목인 감성, 지성, 책임성, 사회성, 자기 실현성을 확보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문학 교육은 읽기(수용)와 쓰기(창작)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뜻이다.¹⁷⁾

유소라, 「〈허생전〉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13면.

조은미, 「실천지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10면.

16) 김대행, 『문학교육 틀 짜기』, 역락, 2000, 116면.

17) 김대행(앞의 책, 2000 : 116)은 인성 교육을 위한 문학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2.2. 사고력¹⁸⁾의 신장과 문학 교육

창의적 사고력이란 개념 규정도 쉽지 않다. 이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여러 주장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을 지적 능력으로 보려는 관점, 둘째, 창의적 사고력을 정의적 특성으로 보려는 관점, 셋째, 창의적 사고력을 문제 해결력으로 보려는 관점, 넷째,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 행위로 보려는 관점이다.¹⁹⁾

이들 논의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 사고력은 제2차적 사고²⁰⁾, 발산적 사고, 직관적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창의적 사고력은 특정한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

몇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 문학에 대한 비민주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둘째, 실제 중심의 문학관에서 활동 중심의 문학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셋째, 문학 교육은 자기실천의 원리가 기본을 이루도록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편견이란 주로 작가와 독자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작품을 쓰는 일은 문학 교육의 몫이 아니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문학 교육에 있어서 창작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활동 중심의 문학관이라는 것은 문학을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주기로 설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활동을 시키는 관점을 말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직접 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문학 교육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실천 원리의 기본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문학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학을 통한 성장이란 문학 창작과 수용에 두루 통하는 일이다.

- 18) 창의성(creativity)은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다. 논자에 따라 인식의 관심이 다르고 이론 및 연구 결과가 다양하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 창의력, 창조성,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들 관련 용어의 정의나 개념 정립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19)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윤정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21면.
- 20) 이미 알려진 것, 또는 결정된 것을 흡수하고 기억하고 파지하고, 그 것을 자료로 하는 추리 작용에 동원되는 사고를 제1차적 사고라 하는 데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새롭게 지각하며, 개조한다든가, 알려지지 않은 것, 전에 없었던 것,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구하고, 상상하고, 만들어 보는 데 동원되는 사고를 제2차적 사고라고 한다. 신세호 역,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1999 참조.

되는 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은 보통의 것 이상의 놀랄 만한 새로운 발명이나 생산적 사고와 착상 및 독창적인 사고 등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사태나 문제들을 새롭게 특이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²¹⁾

한편, 창의적 사고력을 가장 고차원적 사고로 보기도 하고²²⁾ 인간만이 갖는 고등 정신 기능이라고 보기도 한다.²³⁾ 논리적·비판적 사고가 주어진 명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창의적 사고는 기본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논리적·비판적 사고가 습득한 지식을 좁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창의적 사고는 보다 넓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는 역시 문학이라 하겠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수용), 문학적 글쓰기(창작)에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문학적 글쓰기가 창의적 사고의 함양에 효과적이고 문학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이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과의 구체적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²⁴⁾를 통해서도 창의적

21) 신세호 역, 앞의 책, 1999, 32면.

22) Taba와 Beyer는 사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서 창의적 사고가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각적 사고 → 결합적 사고 → 귀납적·연역적 사고 → 문제해결 사고 → 비판적 사고 → 창의적 사고

김영채, 『사고와 문제해결 심리학』, 박영사, 1995, 584면 참조.

23) 인간의 사고를 기능적 측면에서 흡수력(관찰 및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파악력(기억 및 재생산력), 추리력(분석 및 판단 능력), 창의력(구현능력, 예견력, 아이디어 산출력) 이 네 가지로 분류한 학자가 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 능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데 반해, 창의력은 인간만이 갖는 고등 정신 기능이라고 보았다. 신세호 역, 앞의 책, 1999, 17면.

24) 관련된 논문은 다음 저서와 논문 등을 참조할 것.

신헌재,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국어과 교육」, 『국어교육』 73·74호, 1991, 37~51면 참조.

사고력 신장에 있어서 문학(교육)이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들 논의를 종합해 보면, 문학(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이란, 자기의 기존 경험 세계나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 작품이 나타내는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고정 관념이나 사고 유형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 이 사고 유형은 작품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문학적 요소, 기능들이 자신의 내적 경험에 깊이 작용하여 작품의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내면화를 생성해내도록 작용한다. 문학(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의 요인으로는 지적 능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이 있고, 정의적 능력으로 자발성, 독자성, 개방성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3.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성 및 특징

앞서 인성 교육(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있어서 문학(교육)이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역설하였다. 다만 이들 논의는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논의들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과연 이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으며, 또는 일반 문학교육(모국어 문학교육)에서의 인성 함양 및 사고력 신장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6~38면 참조.

우한용, 「문학교육론 서설」,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3, 621~622면 참조.

방인태, 『국어교육과 국문학』, 학지사, 2002, 342~344면 참조.

25) 신현재, 앞의 논문, 1991.

교육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다른지, 그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언어 능력이다. 외국인인 학습자로서 과연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연구자의 실제 교수-학습 경험으로 보서는 적어도 2학년 1학기부터(대개 중급단계부터) 짧은 수필, 2학년 2학기부터 간단한 단편소설과 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모국어 학습자에게 실시하는 문학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實例이다. 다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서 언어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각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작품 읽기의 난도를 줄이기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할 문학 작품을 나눠 주기 전에 담당 교사가 반드시 작품 중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나 문법, 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을 날개의 형식으로 주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모국어 학습자와 비교해 볼 때 타자의 입장을 취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26) 연구자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2학년, 3학년 학생을 가르치면서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이나 수필집의 작품들을 많이 활용해 봤다. 수필이나 소설을 다루는데 괜찮은 효과를 봤지만 시를 다루는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물론 연구자의 경험 부족이란 이유도 있겠지만, 시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장르라는 이유도 있다. 연구자가 그 동안 다루어 온 작품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학년 1학기	수필 : 스스로 터득한 지혜(강희맹), 현이의 연극(이경희),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박동규), 어린날의 초상(문혜영), 약을 팔지 않는 약사(김소경) 소설 : 소음공해(오정희)
2학년 2학기	수필 : 국물 이야기(문형동), 추복 받은 성격(이시형), 어머니의 우산(학생 작품), 먹어서 죽는다(법정), 촌스러운 아나운서(이금희) 소설 : 소나기(황순원) 우연 : 남의 것을 탐내는 지렁이, 들쥐와 민가에 사는 쥐, 공부와 일, 매의 지혜
3학년 1학기	소설 :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 시 : 서사(윤동주), 진달래꽃(김소월), 가는 길(김소월), 국화 옆에서(서정주), 추천사(서정주), 풀(김수영-학생 발표) 수필 : 우리들의 얼굴(법정), 인연(피천득), 트럭 아저씨(박완서), 나의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개의 은유(이여항)

즉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를 대하는 중국인(외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학습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문학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의 내용에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모국어 학습자인 한국인에게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의 학습은 ‘공동체 형성’이란 민족적 목표가 부여될 수 있는 데 반해,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러한 민족적 주체 형성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국 문학 내지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와 감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기 보다는 그런 것들과 결부된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인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지 않거나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성 교육의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에는 ‘국가, 민족, 우리(한국) 문화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이 제기되어 있는데,²⁷⁾ 이러한 주제를 담는 글을 다룰 때 한국 문화 이해의 차원에서 가르치되 조국인 중국, 중화민족, 중국 문화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도록 연관지어 유도함으로써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다.

4.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의 실제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

27) 인성 교육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 중국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²⁸⁾을 보면, 문학을 주로 많이 다루는 교과목으로 언어문화 능력 신장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한국어’와 문학 원리에 입각한 문학 능력 신장과 한국 문학 특질에 대한 이해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한국 문학 작품 選讀(한국 명편 選讀)’ 두 과목을 들 수 있다.

두 교과목 모두 인성 교육과 창의력 신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다루는 작품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한국어’ 과목의 경우, 한국 문학사 상의 정전보다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어울리는 작품을 주로 다루는 데 비해 ‘한국 문학 작품 選讀’ 과목의 경우 정전을 주로 다룬다. 후자의 경우, 오히려 작품 주제 선정에 있어서 더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둘째, ‘한국어’ 과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필수 과목인데 비해 ‘한국 문학 작품 選讀’ 과목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비핵심적인 선택 과목이다. 이는 ‘한국어’ 과목이 상대적으로 학습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아 문학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성취하는 데에는 ‘한국어’ 과목이 더 적절하고 중요한 교과목이라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연구자는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지향하는 문학 교육의 실상을 그려보도록 한다.

28) 각 대학교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학과의 교과 설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교과목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 북경대 한국어학과의 교과과정(2009년도 새로 수정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로 제시해 본다.

필수 과목	기초 한국어(1~4), 고급 한국어(1~4), 한국어 시청각(1~4), 한국 문화, 한중 번역, 중한 번역, 한반도 개황
선택 과목	한국어 실용문 글쓰기, 한국어 신문 읽기(상, 하), 한국문학사(상, 하), 고급 한국어 회화(1~2), 한국어 문법, 한국 문학 작품 選讀(상, 하), 한국 민속, 한국 경제, 한국 철학, 한국어학개론

4.1. - 학습 목표의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는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하위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한국 문화 능력의 신장이라는 일차적 목표가 있다. 이는 한국어학과의 모든 교과목에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데 다만 교과목에 따라 비중을 달리 둔다. 예컨대, ‘한국어’ 과목의 경우, 문화 능력 신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한국 문화’ 과목의 경우, 문화 능력의 신장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보다 더 중요시 여겨진다. 그러나 두 과목은 결과적으로 모두 인성 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귀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작품에 나온 어휘와 문법, 속어 등 언어적 요소의 의미와 용법을 잘 이해하고 중요한 어휘와 문법, 속어 등을 활용할 줄 안다.

- ②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다섯 기능별로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둘째, 한국 문화 능력을 신장시킨다.

- ① 작품의 문화적 배경(사회적 배경, 지리적 배경 등과 같은 거시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해 잘 이해한다.
- ② 어휘, 문법, 속어 등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잘 이해한다.
- ③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잘 이해한다.

셋째, 인성 함양,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성취한다.

- ①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학습자인 ‘나’와 관련 지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등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인성 함양을 성취하도록 한다.
- ② 문학 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요인인 자발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등에 관련된 훈련 방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성취하도록 한다.

4.2. 작품의 선정

위와 같은 교육 목표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 기준은 학습자들이 사전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전을 적게 이용하는 상황에서 작품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수없이 언급된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을 읽게 해 주어야 학습자가 학습 흥미를 잃지 않고 언어 학습 활동, 문화 학습 활동, 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습 활동,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학습 활동 등 여러 후속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상술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인성 교육 성취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담은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어떤 주제를 담는 글이어야 인성 교육의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은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다행히 정기철(2001)은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선별하여 읽을 주제를 나열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단서를 약간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다만 앞서 언급했듯, ‘국가, 민족, 우리(한국) 문화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주제는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관련된 세분화 내용
자아탐색과 자아실현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는 내용 ②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 ③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 ④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내용 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는 내용

29) 정기철, 앞의 책, 2001, 215~230면 참조.

<p>자아실현</p>	<p>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내용 ⑦ 삶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내용 ⑧ 주체성과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⑨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 ⑩ 카타르시스의 원리에 의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내용</p>
<p>가족과의 올바른 관계</p>	<p>①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 ② 행복한 가족을 구성하는 내용 ③ 가족 간에 서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 ④ 가족이 협심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내용 ⑤ 가족 간의 희생을 다룬 내용 ⑥ 형제자매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내용 ⑦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세계를 이해하고 소중히 하는 내용 ⑧ 가족을 그리워하고 기리는 내용</p>
<p>친구와 우정 쌓기</p>	<p>① 진정한 우정에 대한 내용 ②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③ 서로 우정을 나누는 내용 ④ 친구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내용 ⑤ 특수한 장애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는 내용 ⑥ 친구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 ⑦ 계층이 다른 친구들과 이해하고 화해하는 내용 ⑧ 서로가 취향이나 성격,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 ⑨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이해하고 감싸는 내용 ⑩ 친구 간에 서로 다투다가 피해를 보는 내용 ⑪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이야기와 그를 해결하는 내용</p>
<p>이웃과 사랑 나누기</p>	<p>① 이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② 서로 이해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내용 ③ 새로 이사 온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가는 내용 ④ 농촌과 도시, 사는 지역이 다른 이웃의 삶을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⑤ 상류층과 하류층, 계층이 서로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내용 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룬 내용 ⑦ 힘을 모아 불의와 항거하는 이웃 사람들의 삶을 다룬 내용 ⑧ 주변에 누가 사는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 ⑨ 나가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내용 ⑩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 ⑪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내용 ⑫ 장애인들과 소년 소녀 가정들의 생활을 다룬 내용</p>
<p>성(性)에 대해 이해하기</p>	<p>① 생명의 탄생 과정을 담은 내용 ② 신체 발달과 성 기능의 발달을 담은 내용 ③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를 담은 내용 ④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담은 내용</p>

<p>(性)에 대해 이해하기</p>	<p>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내용 ⑥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 ⑦ 성폭행, 성희롱이 상대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내용 ⑧ 성은 사랑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 ⑨ 낙태가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내용</p>
<p>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끌어안기</p>	<p>① 사회와 개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깨닫게 하는 내용 ② 지구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담아내는 내용 ③ 기계문명과 물질문명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④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 ⑤ 현재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미래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가 알리는 내용 ⑥ 과학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만 그 폐해도 크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 ⑦ 핵전쟁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 ⑧ 동물과 식물을 아끼고 지켜야 됨을 깨닫게 하는 내용 ⑨ 분단의 이픔을 알리고 통일의 필연성을 알리는 내용 ⑩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 ⑪ 부정부패 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⑫ 해외 입양아 문제를 다룬 내용 ⑬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내용</p>
<p>국가, 민족, 우리 문화를 지키는 마음</p>	<p>① 우리 민족의 연원과 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② 국가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삶을 다룬 내용 ③ 국토의 소중함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담긴 내용 ④ 국가와 민족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는 내용 ⑤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⑥ 제와 동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내용 ⑦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통일의 필연성을 알리는 내용 ⑧ 민족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낸 조상들에 대한 내용 ⑨ 유형·무형 문화재의 가치와 귀중함을 일깨우는 내용 ⑩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과 전통 문화를 알게 하는 내용 ⑪ 세시 풍속 등 우리 전통 풍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 ⑫ 우리 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조상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내용</p>
<p>삶을 위한 지혜 쌓기</p>	<p>① 삶,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이해를 주는 내용 ②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와 슬기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 ③ 삶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가는 내용 ④ 근면과 성실을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 ⑤ 냉정한 비판력과 따뜻한 마음, 정서를 갖게 하는 내용 ⑥ 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향해 마음, 정서를 갖게 하는 내용 ⑦ 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하는 내용 ⑧ 봉사와 희생을 주요 덕목으로 하는 내용 ⑨ 모든 삶은 다르나 모두 가치 있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 ⑩ 어른과 아이의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p>

셋째,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도록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힘과 창의력이 얻어지게 되는 법이다. 그것은 흥미라는 요소의 작용 때문이다. 흥미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생각을 해 내게 된다. 흥미가 사람들의 창의력을 촉진시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3. -학습 방법의 고안

위의 교육 목표에 따르면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지도 방법에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문화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지도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의 교수-학습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섞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측면의 지도 방법 각각 어떤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문화 능력 신장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고,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지도 방법이나 모형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교육(함양)을 위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문학 교육은 결국 크게 읽기(작품 이해하고 감상하기) 교육과 쓰기(문학적 글 쓰기) 교육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에 문학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도 주로 읽기와 쓰기 두 부분에 관련하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의 지도 방법은 인성 교육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과

쓰기 지도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읽기쓰기 지도 방법의 설정에 근원이 된 인성 교육의 기본 원리, 지도 원리 및 지도 절차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성 교육의 기본 원리로는 자기 성찰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삭제의 원리, 순화의 원리, 항존성(恒存性)의 원리, 동일화의 원리, 은유의 원리, 자득(自得)의 원리, 스스로 계획하기의 원리, 자기 실천의 원리, 자기실현의 원리를 들 수 있고, 인성 교육의 지도 원리로는 일관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주제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체험의 원리, 분화와 통합의 원리, 지행합일의 원리를 들 수 있으며, 또는 인성 교육의 일반적 지도 절차로는 (1) 현실의 ‘나’를 정확하게 알고 (2) ‘나’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삭제하고 (3)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4)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나’를 대입·이입하여 동일화를 이루고 (5) 새로운 ‘나’를 계획하고 (6) ‘나’를 실현하는 과정을 완수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다.³⁰⁾

이와 같은 원리와 절차에 근거한, 인성 교육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은 주로 읽기 자료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던져 주는 질문의 제시 기법과 발문의 유형과 내용에 구현된다.³¹⁾ 능률적인 질문 제시의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³²⁾

- 1) 질문을 명백히 진술한다.
- 2) 기본적으로 교과 관련 질문을 제시한다.
- 3) 질문 제시 후 교수는 3~5초 기다려 준 다음 학생의 반응을 요구한다. 상위·인지 수준 질문을 했을 때 더욱 그렇게 한다.

30) 정기철, 앞의 책, 2001, 35~57면 참조.

31) 다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읽기 지도에서도 학습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반응은 글을 이해하는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읽기 자료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는 교사의 질문에 따라 학습자의 글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지므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32) 정기철, 앞의 책, 2001, 233면 참조.

여기서는 대학생에게 적절한 것만을 선별하여 밝힌다.

- 4) 학생이 제시된 질문 하나 하나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하도록 격려한다.
- 5) 반응을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 균형 있게 반응을 요구한다.
- 6) 학생에게서 정답반응의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고, 부정확한 응답에 대해서는 바르게 답하도록 도와준다.
- 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각들을 명료히 하고, 관점을 정당화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8) 학생의 응답 반응이 정확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되, 구체적으로 그리고 변별적으로 칭찬한다.

그리고 발문 유형은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발문, 읽기 중 발문, 읽은 후 발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발문의 내용은 크게 도덕성을 함양하는 발문과 ‘나의 정체성을 살리는 발문으로 나뉘질 수 있다. 예컨대 글을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도덕성 측면의 발문이고, ‘나와 관련하여 읽었는가? 라는 질문은 ‘나의 정체성 살리는 발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성 교육을 위한 이 두 가지 발문만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인성 교육을 위한 발문만을 한다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다. 내용 이해에 관한 질문,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여 함양하는 질문, 어휘력과 관련 지식을 넓히는 발문과 학습 활동도 학습 단계와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³³⁾

여기서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시와 소설을 위한 질문의 방식과 내용을 예로 제시해 본다.

시 읽기를 위한 질문

-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 읽는 사람은 누구로 가정되어 있는가.

33) 정기철, 앞의 책, 2001, 236~242면 참조.

- 소재는 무엇인가.
-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시의 중심생각은 무엇인가.
- 아름다운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비유나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이 시에서는 어떠한 리듬을 느낄 수 있는가.
- 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은 무엇인가.
- 시인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가.

소설 읽기를 위한 질문

- 등장인물
 - 주인공은 누구인가
 - 주인공과 대립하거나 주인공을 돕는 인물은 누구인가
 - 주인공(또는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현실에서 주인공과 같은 사람을 만나봤는가.
- 사건
 - 주인공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가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사건의 실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인가.
 - 사건의 절정 부분은 어디인가.
 - 사건은 무엇을 통해 전환되는가.
 - 주인공(또는 등장인물)은 어떤 장애에 부딪히는가.
 - 주인공(또는 등장인물)은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는가.
 - '나'가 주인공이라면 이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배경
 - 공간적 배경은 어디이고,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
 - 배경이 사건이나 주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배경이 바뀌는 부분은 어디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제
 -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다고 생각하는가.

- 주제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어디인가.
-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장치한 것은 무엇인가.
- 이 글을 읽고 나서 달라진 생각은 무엇인가.
- 이 주제에 관한 다른 글을 읽어 봤는가.

그리고 쓰기 지도 방법으로 세상을 이루는 나, 가정, 사회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따라 크게 '나를 바로 세우기에 관한 쓰기 활동, 가족의 중요성 알기에 관한 쓰기 활동, 사회를 바르게 보기에 관한 쓰기 활동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나를 바로 세우기에 관한 쓰기 활동은 현재의 '나' 바로 알기, 관계 속의 '나'를 알기, 마음 열기(감정 표현하기), 다른 사람과 교감하기, '나'를 버리기, 생애 곡선 그리기, 생애 마무리하기, 새로운 '나'를 계획하기, 인생나무 그리기에 관한 쓰기 활동을 들 수 있고, '가족의 중요성 알기에 관한 쓰기 활동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주변 약도 그리기, 가족 소개하기, 가족 편지, 가족 달력 만들기, 가족 헌법 만들기 쓰기 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여기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쓰기 활동만을 제시해본다. 독자 코너 활용하기, 서로 다른 내용의 기사 활용하기, 서로 반대되는 주장의 글 활용하기, 도표 활용하기, 생활 기사 활용하기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³⁴⁾

(2)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들 수 있다.³⁵⁾

34) 정기철, 앞의 책, 2001, 135~193면 참조.

35) 황은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5~29면 참조.

[1]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단 계	절차	주요 활동 내용	작품과 관련된 창의성 요인					교수·학 습 기술 및 자료	학습 교류 유형
			자발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계 획 단 계	절차1 창의적 학습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집중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텍스트에 대한 동기 유발 • 배경 지식의 활성화 • 학습 목표 제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 여기고 생각해 보기			참신하게 말하기		만일 ~ 라면	교사 ↔ 학생
진 단 단 계	절차2 창의적 표현을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 •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 교사의 시범 보이기 •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반응 형성 • 학습자의 문학 수용 능력 진단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묻기						텍스트 ↔ 학생 교사 ↔ 학생
	반응 기술하기	절차3 창의적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고 교사의 발문에 답하기 	자신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작품 대하기	연상하기, 예시하기 (문제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해결책 제시하기)	바꾸다, 관계짓기(특정 부분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바꾸어 이야기 전개하기)			브레인스토밍
지 도 단 계	절차3 창의적 표현 활동 비교· 확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자료를 통한 학습 					묘사하기, 재구성하기, 완성하기(요약기술행위 부분을 회고화하기, 특정 부분 추리 줄거리가)		학생 ↔ 학생

분석· 도 단 계 심 화 하 기	절차3 창의적 표현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발문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실생활과 관련하여 토의, 토론하기 				참신하게 말하기(주제를 전혀 새롭게 생각해 보기)			교사 ⇔ 학생 학생 ⇔ 학생
평 가 단 계	절차4 평가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참신하게 말하기(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보기)	상상하기, 예언하기(생각한 장면을 이미 지화하기)		텍스트 ⇔ 학생
내면 화 단 계	절차5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체의 확대와 심화 요약 정리 							학생, 교사

한편, 창의성 하위 요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지도기법도 연구되어 있어 역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창의력 하위 요인의 지도기법³⁶⁾

창의적인 요인		학습 경험 수준	자료 활용 기법
유 창 성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에 대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기 어떤 대상(언어, 도형)이나 현상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연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레인스토밍 생각 이어 나가기
응 용 동 성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에 대한 시점을 변화시켜 숨겨진 면을 파악하기 특정한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함께 떠올리기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레인스토밍 형태 기법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의견 다루기 관계없는 것끼리 짝짓기

36) 서울특별시 교육청, 『창의성 교육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5, 25면.

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산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하기 • 생각이나 사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생각하기 • 기존의 생각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集 研討] • 창의적 문제 해결 • 형태 기법 •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 비판적 사고성향 • 관계없는 것끼리 짝짓기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연중에 떠오르는 거친 수준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 아이디어를 그것의 실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 • 창의적 문제 해결 • 형태 기법 • 아이디어 계통도 만들기 • 계획 세우기

(3)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이상으로 인성 함양을 위한 지도 원리와 절차,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모형 및 지도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이를 ‘계획단계 → 진단단계 → 지도단계 → 평가단계 → 내면화 단계³⁷⁾란 문학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다.³⁸⁾

37)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제4판, 삼지원, 2001, 276면 참조.

38)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안은 인성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만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 아니며,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문화능력을 향상 시켜야 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고안한 방안이다. 따라서 이 교수-학습 방안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분석적 읽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읽은 후 활동까지 읽기의 과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 국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에 비해 볼 때 약간 고답적이고 낱아 보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감안 할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강계화손은령, 「문학 텍스트를 통한 인성교육」, 『교육연구논총』 27-1, 2006, 31~50면.

이현숙, 「고전소설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0~57면.

유소라, 「〈허생전〉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9~64면.

이하나, 「판소리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5~79면.

박선병, 「성장소설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한국어’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의 지도 방안

수업 절차	주요 학습 활동	목표
계획 단계	(1) 작품 제목이나 주제, 작품의 배경 혹은 기타 중요한 요소 등을 엄두에 두고 학생 본인에게 관련짓는 문제를 던져 주어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	(1) 사고의 자발성을 유발한다. (2)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3)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2) 작품을 학생에게 나눠 읽게 한다. 작품에는 어휘와 문법에 관한 간단한 中韓해석을 날개 형식으로 제시해 준다(교사가 미리 해둠). ② 짧은 글의 경우 수업 시간에 읽게 하고, 긴 글의 경우 수업 전에 미리 주어 읽어 오게 한다.	(1) 읽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진단 단계	(1) 작품의 줄거리나 기본 내용을 이야기하게 한다. (2)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을 말해 보게 한다.	(1)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문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 자발성을 유발한다. (2)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35~78면.

박보경, 「토론식 문학 수업을 통한 학생인성교육 :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백묵원』과 뒤렌마트의 『천사 바빌론에 오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영수, 「인성교육을 위한 수필 지도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60면.

강혜란,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1~89면.

김명아, 「고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연구 : 중학교 교과서 수록 <토끼전>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9~68면.

김재원, 「문학 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방법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7~86면.

이정희, 「설화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 안양 설화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1~112면.

이경열,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5~98면.

	<p><읽기 지도></p> <p>(1) 교사의 지도하에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한 단락을 단위로 학생들이 차례로 소리 내어읽게 한 후 번역을 시킨다. 틀리게 이해하는 어휘나 문법, 그리고 문화적 요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p> <p>②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작품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 본인 및 실생활과 관련지어 질문해 본다. (활동 : 입장 바꾸기, 연상하기, 예시하기, 바꾸기, 관계짓기 등)</p>	<p>(1) 발음과 억양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교정해 주고, 작품에 나온 어휘와 문법, 속어, 문화적 요소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언어 능력 신장시킨다(ppr 활용).</p> <p>(2)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한다.</p> <p>(3) 사고의 자발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을 훈련시킨다.</p> <p>(4) 인성 교육을 시킨다.</p> <p>(5)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킨다.</p>
단계	<p><읽은 후 활동 : 내용 학습></p> <p>(2) 작품을 읽은 후 활동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져 답하도록 한다. (활동 : 묘사하기, 재구성하기, 완성하기,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한 바를 표현하기, 써 보기)</p>	<p>(1) 사고의 정교성을 신장시킨다.</p> <p>(2)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p> <p>(3)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킨다.</p>
	<p><읽은 후 활동 : 목표 학습></p> <p>(3) 작품의 문화적 요소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질문한다. (활동 : 작품 속에 나온 문화 현상과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문화 현상 비교하기, 작품 속에 나온 문화 현상에 관한 기타 자료를 찾아와 요약하기, 작품 속에 나온 문화 현상에 대한 생각 말하기)</p> <p>(4) 작품의 주제나 문화 배경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학생 본인이나 실생활과 관련지어 질문하여 답하도록 한다. (활동 : 토론하기, 고쳐 쓰기, 이어 쓰기, 비교하여 써 보기)</p>	<p>(1) 문화 능력을 신장시킨다.</p> <p>(2)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p> <p>(3) 인성 교육을 시킨다.</p> <p>(4) 사고의 독창성을 신장시킨다.</p>
평가 단계	<p>(1) 어휘, 문법, 속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p> <p>(2) 문화적 요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평가하기</p> <p>(3)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평가하기</p> <p>(4)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활동 : 참신하게 말하기, 상상하기, 예언하기 등)</p>	<p>(1) 어휘, 문법, 속어 등 언어적 요소를 확실하게 배워 두도록 하여 언어능력을 신장시킨다.</p> <p>(2) 문화 능력을 신장시킨다.</p> <p>(3) 사고의 독창성과 상상력을 신장시킨다.</p>
단계	<p>(1) 개인적 체험의 확대와 심화</p> <p>(2) 요약 정리</p>	<p>인성 교육을 시킨다.</p>

4.4. - 학습의 예

여기에서는 <소음공해>라는 소설에 대한 교수-학습을 사례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이를 앞서 이 소설의 주제와 기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다. 이 소설은 이웃 간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웃 간의 무관심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을 돕는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은 위층 주인이 바뀐 이래 한 달 전부터 난 그 정체모를 소리에 밤낮없이 시달려왔다가 일주일을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차도가 없었고, 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주의를 시켜도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주인공은 고민 끝에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슬리퍼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그 순간 주인공은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이 소설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 계획 단계>

1.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 보자.

(1)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종종 소음 때문에 곤란해진다. 여러분들도 참을 수 없는 소음 때문에 짜증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해 보자.



(2) 여러분은 이웃집 혹은 기숙사 옆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웃집 혹은 기숙사 옆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해 말해 보자.

- (3) 이웃집(혹은 기숙사 옆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친구들과 짧은 극을 만들어 보여주도록 하자(그룹 활동).
- (4) 오늘 읽을 소설의 소재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2. 소설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지정된 시간 안에 읽어 내도록 한다.

* 소설의 어려운 어휘나 문법에 대한 한중 해석을 날개 형식으로 보여준다.

< 2: 진단 단계 >

1. 이 소설의 줄거리를 극으로 보여주자(그룹 활동).

2. 이 소설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에 대해 말해 보자.

* 대부분 학생들은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 준다(PPT 활용).

<절차3: 지도 단계 >

1. 지도 순서 단락별로 지도를 하고, 순서대로 지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단락 본문을 읽고 번역해 본다.

* 번역을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지적해 내어 고쳐 준다.

둘째, PPT를 활용하여 틀리게 이해하거나 중요한 어휘나 문법, 문화적 요소 등에 대해 다양한 대화의 예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이고 생동한 설명을 한다. 예컨대 한국 주부 생활, 한국 주부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한다는 문화, 함진아비 문화 등.

셋째, 읽어 나가면서 본문 내용에 관한 질문과 본인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인성교육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관련된 질문임)을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답하도록 한다.

넷째, 읽은 후 관련 학습 활동(질문 답하기, 그룹 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지도해 준다.

2. 읽어 나가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

라	질문 내용	질문 범주
1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고 가족 상황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험을 말해 보자.	인성 함양
2	주인공의 취미가 무엇이고 이 취미로 보아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창의적 사고력 신장
	주인공의 젊었을 때의 꿈은 어땠는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주인공이 음악을 듣다가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3~7	정체 모를 소리에 대한 가족들의 추측과 반응을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어떤 소리일 것 같은지 추측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8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이 단락에서 보여준 주인공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주인공의 이런 특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인성 함양
9	주인공은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주인공과 경비원의 관계가 어땠는지 상상하여 말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주인공과 경비원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고, 학생은 본인이 사는 동네의 경비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인성 함양
10~13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읽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위층 사람이 왜 늦게 전화를 받았는지 짐작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14~16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이 택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이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인성 함양
17	위층 사람이 문을 늦게 열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18	위층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19	주인공이 부끄러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주인공이 슬리퍼를 뒤로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창의적 사고력 신장

3. 읽은 후의 학습 활동

(1) 내용 학습에 관한 학습 활동

	내용	활동 방식
1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이 했던 행동들을 표로 정리해 보자.	글쓰기
2	'나에 대한 묘사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본 '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말해 보자.	토론

(2) 인성 함양 및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

	질문 내용	활동 방식
1	여러분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토론
2	만일 '나가 교양 없는 여자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토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웃집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 • 이웃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바꾸기 • 극으로 보여주기 • 토론
4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웃 간에 일어난 갈등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 쉽게 일어나는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 • 글쓰기
5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웃을 서로 돕고 사는 이야기를 찾아보고 발표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 • 토론
6	시대에 따라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써 보자.	• 글쓰기
7	한국 여성의 가정생활과 중국 여성의 가정생활을 비교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 • 비교하기
8	흔히 요즘 사람들 이웃 간에 정이 없다고, 인정이 메말라 간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말해 보자.	• 토론

< 4 : 평가 단계>³⁹⁾

1. 언어적 요소에 대해 평가하기
*선택 문제, 빈칸 채우기 등 문제를 통해 평가해 보기
2. 문화적 요소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해 평가하기
3.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4. 인성 교육과 창의력 신장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절차5 : 내면화단계>

1. 이 글을 통해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해 보자.

5.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 즉 인간미를 지닌 인간을 만들기 위해 수행된다. 이러한 교육의 본질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상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한국어 교육이 ‘말만 잘하는 기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앵무새와 같다’는 말도 기능적인 인재만을 산출하는 기존 외국어교육(한국어교육)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한국어 교육의 폐단을 지양하고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한국어교육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기존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를 새롭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 신

39)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편폭 등 관계로 평가의 범위만을 제시해 보고,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해 다음 연구에서 밝히기로 한다.

장, 문화 능력 신장이나 한국학 전문 인재의 양성을 궁극적 목표가 아닌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인성 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이차적인 목표(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목표에 따른 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는데, 우선 이와 같은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문학(교육)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그 다음 중국 4년제 한국어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교과목 설정, 교수-학습 목표 설정, 문학 작품 선정, 교수-학습 방법 고안 등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인성 함양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을 강조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의 첫 시도인 만큼 개괄적인 수준에 그친 감이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틀을 실제 교육에 많이 적용시키고 구체화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어떤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야 할지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연구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들 문제는 후속 연구내용에 보탬 것을 약속드린다.



함양, 인성교육, 창의적 사고력 신장, 한국 문학 교육, 중국인 학습자

- 강혜란,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31~89면.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제4판), 삼지원, 2001, 276면.
- 김기석, 『성격과 지도』, 현대교육출판사, 1968, 240~241면.
- 김대행, 『문학교육 틀 짜기』, 역락, 2000, 116면.
- 김명아, 「고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연구 : 중학교 교과서 수록 <<토끼 전>>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9~68면.
- 김영채, 『사고와 문제해결 심리학』, 박영사, 1995, 584면.
- 김재원, 「문학 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방법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37~86면.
- 남 연,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목표 및 내용의 선정과 위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43~62면.
- 박보경, 「토론식 문학 수업을 통한 학생인성교육 :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백묵원』과 뒤렌마트의 『천사 바빌론에 오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선병, 「성장소설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5~78면.
-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6~38면.
- 방인태, 『국어교육과 국문학』, 학지사, 2002, 342~344면.
- 서울특별시 교육청, 『창의성 교육 문을 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5, 25면.
- 신세호 역,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1984, 17면32면.
- 신헌재,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국어과 교육」, 『국어교육』 73·74호, 1991, 37~51면.
- 우한용, 『문학교육론 서설』, 『난대 이용백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3, 621~622면.
- 유소라, 「<허생전>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13면.
- 윤여탁, 「문학 교육과 한국어 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제19차)학술대회 논문집. 2003, 1~29면.

- 윤정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읽기 교수-학습 모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21면.
- 이경열,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반응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5~98면.
- 이순옥, 「반응 중심의 상상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발문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7~86면.
- 이정희, 「설화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 안양 설화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1~112면.
- 이하나, 「판소리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5~79면.
- 이현숙, 「고전소설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1~18면.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21면·35~37면·135~139면·215~230면·236~242면.
- 조영수, 「인성교육을 위한 수필 지도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60면.
- 조은미, 「실천지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10면.
- 한상효 외, 『교육학개론』, 형성출판사, 1994, 25면.
- 황은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5~29면.
- 황응연,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1995, 28면.
- 陳雲愷, 「人性教育：人文教育的“課程方法”」, 『高等教育研究』 23-4, 2002, 1~5면.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Humanity Cultivation and Creative Thinking Extension

— Based on Chinese Learners —

Nan, Yan

The ultimate aim of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is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ability, and to cultivate korean professionals also. But in the light of essence of education and the desired role model of the society, we can find some problems of the ultimate aim. The most salient question is focusing too much on cultivating functional talent who can just speak korean language very smoothly and have a good knowledge of korean culture in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the basis of it,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ultimate aim of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et up a primarily aim and a secondary aim which is also the ultimate aim. The primarily aim is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y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ability, and to cultivate korean professionals also. The secondary aim is humanity cultivation and creative thinking extension. Continually the researcher made a study on the new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which is following the new aim. The fact that literature education is the best way to achieve the aim was revealed firstly, and how to do the literature education in the real teaching was clarified secondly by studying the curriculum, the aim, the standard of selecting literary work and the method of teaching literature.

⊕ **Key Words** : Humanity Cultivation, Human Nature Education, Creative Thinking Extensi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Chinese Learners

[수정]

- 262쪽 1줄 '한국어 다음에 달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 ' 따옴표 삭제했습니다.
- 289쪽 4줄 (3)을 (4)로 바꾸면 될까요?
: (4)로 바꿔 두었습니다.
- 261쪽, 각주* 저의 소속은 다음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선(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